



한덕수 국무총리, G20 화상 정상회의 참석

- G20의 3대 중점 협력 과제로 다자개발은행(MDBs) 개혁, 무탄소 에너지 확산, 인공지능(AI) 거버넌스 마련을 제시
- G20 논의와 협력 진전을 위한 한국의 건설적 역할 지속 의지 표명

- 한덕수 국무총리는 11.22(수) 밤 G20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하였다.
 - 이번 G20 화상 정상회의는 의장국 인도의 나렌드라 **모디**(Narendra Modi) 총리가 지난 9월 인도 뉴델리 G20 정상회의에서 제안하여 특별히 추진된 것으로, 올해 성과를 점검하고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.
 - 이번 회의에는 21개 G20 회원국을 비롯하여* 나이지리아, 네덜란드, 모리셔스, 방글라데시, 스페인, 싱가포르, 아랍에미리트연합, 오만, 이집트 등 9개 초청국과 UN, ILO, IMF, 세계은행, OECD, WTO, FSB, WHO, ADB, 국제태양광동맹(ISA), 재난대응인프라연대(CDRI) 등 11개 국제기구 대표가 함께 참석하였다.
 - * 한국, 남아공, 독일, 러시아, 멕시코, 미국, 브라질, 사우디아라비아, 아르헨티나, 영국, 이탈리아, 인도, 인도네시아, 일본, 중국, 캐나다, 튀르키예, 프랑스, 호주, 유럽연합(EU), 아프리카연합(AU)(의장국인 코모로가 참석)
- 한 총리는 발언을 통해서 G20이 세계 경제 불확실성, 기후변화, 지정학적 갈등 등 복합위기 상황에서도 9월 뉴델리 정상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 행동에 합의함으로써 연대의 정신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였다.
 - 또한, △기후와 개발 재원 증대 △인공지능(AI)에 대한 국제 거버넌스 마련 노력 △평화 회복을 위한 단결 등을 올해 G20을 핵심 성과로 꼽으면서 그 이행을 강조하였다.

- 이어서 한 총리는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G20이 중점을 두어야 할 3대 과제로 ① 다자개발은행(MDBs) 개혁 ② 무탄소 에너지 확산 ③ 인공지능(AI) 거버넌스 마련을 제시하고, 협력 진전을 위해 한국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.
 - 먼저, 한 총리는 팬데믹, 식량안보, 기후변화 등 다양한 전지구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MDBs의 목표를 재정립하는 등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야 한다고 언급하며, 그 과정에서 G20 국제 금융체제 공동의장국으로서 한국의 건설적 역할을 약속하였다.
 - 다음으로, 한 총리는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인 신재생, 수소,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의 확산을 강조하고, 10월 출범한 무탄소 연합(Carbon Free Alliance)이 국제적인 무탄소 기술 혁신과 협업을 촉진하고 국가간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.
 - 아울러, 한 총리는 AI의 발전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 거버넌스 마련이 필요하다면서, 한국이 내년 ‘AI 글로벌 포럼’과 ‘AI 안전성 미니 정상회의’ 개최 등 AI 거버넌스 논의에서 주도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을 설명하였다.
-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한 총리는 국제사회가 당면한 주요 도전 대응에 있어서 G20의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천명함으로써, 수소와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와 디지털 분야 선도국으로서의 한국의 입지를 각인시키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국제사회에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.
-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차기 G20 의장국인 브라질 및 여타 G20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내년 G20 정상회의(2024.11.18.-19, 리우데자네이루)에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	책임자	과장	박영철 (044-200-2136)
		담당자	사무관	박철순 (044-200-2135)

